9월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병지휘부 및 장병들의 대통령에 대한
경례에 문재인(사진 속 화면) 대통령이 거수경례로 답례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으로 도약

“미래 국군 강력한 힘, 우리 기술 역량 충분”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5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앞선 지난 8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000억 원 수준의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8.5% 늘린 4조2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배경 하에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 1000㎞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 사업,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인 국산 전투기 보라매 사업, 소형 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등도 함께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다”며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이라는 주제로 과학화·정예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갈 미래 국군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글 이주형 기자 **사진** 양동욱 기자

당신의 늠름한 모습에서 '미래 강군'을 보다

문 대통령 역대 최초 '국산 전술차량' 타고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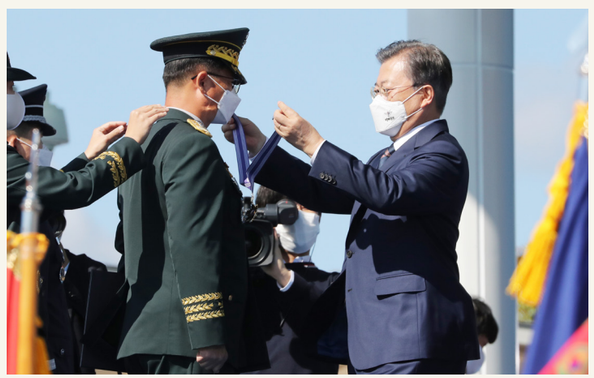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부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우리 군의 든든한 모습과 효율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으로 거듭나는 미래의 비전을 동시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각 군이 자랑하는 특수부대의 활약상과 이들의 공중침투, 특공무술 등이 국민에 공개됐다.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수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의 정예요원들을 코로나19 등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도 국난극복과 국가수호의 주역으로서 든든한 국군의 모습을 현시했다.

또 기념영상을 통해 우리 군 최초의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를 비롯한 육·해·공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미래전을 선도하는 첨단 강군으로의 진화도 예고했다.

맹수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황대일 육군1군단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술지휘 차량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의전 차량이 아닌 국산 전술차량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전술차량을 타고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의전 차량이 아닌 국내 개발 전술차량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군대전병원 코로나 격리병동에서 임무를 수행한 박예지(육군대위) 간호장교가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엔 시누크(CH-47) 헬기에 달린 대형 태극기가 행사장 위에서 나부꼈다. 행사에서 각 군 헬기 제대는 육군항작사령부 고성주 소령이 지휘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육군에 근무하고 있는 3대(代) 군인가족으로 2014년 탑헬리건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최정예 조종사다.

행사 중간 상영된 영상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였다.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과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주제로 제작된 2편의 영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각 군의 임무 수행 모습을 통해 미래 강군의 의지를 다지고, 우리 국토를 지키는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군의 날 개인표창은 육군1군단 황대일 중장과 공군8전투비행단 전경석 대령, 해병대사령부 이대희 중령, 해군작전사령부 권용희 원사, 국방부 김은경 서기관이 받았다. 부대표창은 육군5사단·3공수특전여단, 해군작전사령부, 공군20전투비행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다.

임채무 기자

국군의장대 기수단이 사열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하늘에 태극무늬를 그리고 있다.

첨단 국군 한자리에 대체불가 위용 과시

육·해·공군 공중전력 사열
문 대통령, “광복군의 정신 특수전 부대에 계승”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육·해·공군,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특수전의 역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한 것이 특수전의 시작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기념식은 여러 ‘최초’ 기록을 세웠다. 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전술차량을 타고 입장하면서 시작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의전 차량이 아닌 국내 개발 전술차량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도 최초다. 특전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낸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특전사 장병들이 기념식 행사장에서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후 단상을 내려와 연병장에서 특수전 요원들과 직접 주먹인사를 나누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또 1~2분의 즉석 격려 말씀으로 특수전 요원들을 노고를 치하해 그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육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을 주축으로 한 육·해·공군 특수부대원 24명의 고공강하가 진행됐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6·25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고공강하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뤄 큰 박수를 받았다.

육·해·공군의 공중전력 사열은 국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열에는 공군 조기경보기(E-737)와 공중급유기(KC-330),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인 F-35A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와 아파치(AH-64)·시누크(CH-47)·수리온(KUH-1)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가 참가했다.

특전요원들의 특공무술과 연계한 공중기동은 행사의 백미였다. 특전요원들은 헬기에서 급속 헬기로프 하강으로 착지한 뒤 특전무술로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언제,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국군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팔각대형을 바탕으로 국군의 날 72주년을 기념하는 72개 특전무술 품세를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다. 끝

임채무 기자

특전사 장병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특전사 장병들이 헬기에서 내려 신속히 기동하고 있다.

두 대의 RF-16 정찰기가 상호 교차하며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정예강군 육성 미래형 강군으로

처음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그 알차고 화려했던 행사 현장을 국방일보 카메라로 생생하게 전한다. 편집 양동욱 기자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부 의장대 기수단이 깃발을 펄럭이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6·25전쟁 참전 유엔 국가의 국기와 함께 강하하고 있다.

육군3공수특전여단 특전요원이 종합격파 시범 중 맨손으로 대리석을 격파하고 있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특전여단 요원들이 특공무술을 선보이고 있다.

육군 아파치 헬기가 행사장 상공에서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

특전용사들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급속 헬기로프 하강을 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해군사관생도를 비롯한 각 군 사관생도들이 호국영령들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병지휘부 및 각 군 기수단과 육·해·공군 장병들이 사열식을 하고 있다.